

# 전남도, 4482억 규모 발전소·車부품 기업 잇단 유치

## 궤도 등 9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나주·함평 등에 185명 일자리 창출

전남도가 29일 나주시 등 7개 시·군과 협력해 9개 신설기업과 4482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장흥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에 18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유)대한엔지니어는 광양 익신산단에 34억원을 투자해 산업용 정밀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한다.

(주)궤도는 장흥 바이오산단에 71억원을 들여 농수산물 분말 가공공장을 건립, 장흥산 친환경 농·특산물을 분말 가공해 대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무안 농공단지에도 2개 기업이 72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말 준공한 몽탄특화 농공단지에서 처음으로 입주하는 에코솔트(주)는 미세플라스틱과 간수를 제거한 친환경 천일염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주)창해엔씨는 삼향농공단지에서 LG하우시스 브랜드로 창호를 제작한다.

나주 혁신산단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산화해 만든 탄화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반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2개소가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주)이에는 2800억원을 투자해 40MW급 발전소와 연료전지 연구소를 운영하고, (주)비에스케이는 1400억원을 투자해 20MW급 발전소와 연료전지 소재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주)에스아이텍은 함평 빛그린국가산단에 자동차 부품 생산과 시트 조립 공장을 구축한다. 보배수산은 진도 농공단지에서 수산물 건조 및 가공공장을, 맥스코리아는 순천 해룡산단에 교통안전표지 및 표지판 등 각종 지주 제작 공장을 짓기로 했다.

배택후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그린뉴딜 청정 전남을 주도할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나주 에너지밸리에 들어서고, 자동차 전용산단인 함평 빛그린산단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등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들어 지금까지 761개 기업과 19조875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 1000개 기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스마트팜 창업보육 교육생 전남도, 5월 말까지 모집

전남도는 미래 농업을 이끌 스마트팜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5월 31일까지 청년창업 교육생 52명을 모집한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은 스마트팜 취업과 창업을 바라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0개월간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실습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실제 독립 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전문 농업교육 과정이다.

스마트팜 분야 취·창업을 바라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스마트팜 코리아 누리집(www.smartfarmkorea.net)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지원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1차 적격심사, 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9월부터 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 등에서 ▲첨단농장 기초, 작물 재배 등 이론교육 과정 2개월 ▲도내 선도 농가에서 진행되는 교육형 실습 과정 6개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1년간 영농을 경영하는 경영형 실습 과정 등 20개월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전액 무료다. 수료 교육생에겐 스마트팜에 취·창업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우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민간기업 유치 기관합동 투자설명회

광주시가 기관합동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민간기업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9일 “이날부터 이틀간 홀리데이인광주에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자(VC),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관합동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민간 엑셀러레이터인 ‘액센트리벤처스’가 주관해 인공지능 및 에너지분야 기업 29개사, 콘텐츠 관련 기업 32개사가 참여했다.

시는 특히 투자유치설명회에 유관 공공기관과 민간 엑셀러레이터인 액센트리벤처스 등이 참여함에 따라 광주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안에서 인공지능 기업과 다양한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 등을 기대되고 있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 유망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9일 오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역기업 및 인공지능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관합동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 속도낼 듯

## 빛고을개발, 광주시에 보증서 제출...다음달 3일 사업계획 설명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인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할 보증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29일 협약 이행 보증서와 사업 이행 보증서 보완 요구를 완료해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이행 보증채권자는 종전 광주시와 빛고을 공동에서 광주시 단독으로 변경했으며, 빛고을은 보증채무자로 분리

됐다.

법인 측은 “보증서와 관련해 더 논란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달 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이행 보증서는 공원 조성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원 규모, 협약 이행 보증서는 토지 매입비의 10%인 326억원 규모로 사업이 무산될 때 대비한 보증금 성격이다. 광주시는 보증서가 제출되지 않고, 일부 효력과 관련한 논란이 생기자

이달 말을 시한으로 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보증서 미제출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 취소 등을 의미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이날 사업자측이 보증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조정협의회에서 4차례 협의 끝에 제시한 권고안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업조정협의회 조정권고안은 ▲선분양 3.3㎡당 1898만원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 세

대 철회 ▲기존 실시계획 인가에서 제외된 85㎡ 이하 국민주택 383세대 공급 ▲분양가 추가 인하 검토 등이다. 이는 그동안 광주시와 사업자측이 1년 여간 4차례에 걸쳐 합의한 후분양 1900만원 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안이다.

하지만, 시청 내부에선 “선분양 기준 3.3㎡당 1600만원 이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향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함께 사업 지연에 따른 1500억원대의 땅값 상승액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측에서 보증서를 모두 제출한 만큼 세부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상습 침수피해 광산 연산지구 광주시, 배수개선사업 선정

광주시가 상습 침수피해를 입어온 광산구 연산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시작한다.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된 이어 올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 저지대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예산부족 등으로 신청에서 신규 지정까지 평균 4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연산지구 개선 사업의 절실함을 적극 설득한 끝에 1년만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사업비 113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올해 본격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광산구 연산동 등 4개동과 남구 송촌동, 양촌동 일대의 총 116ha에 달하는 농경지가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현중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연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마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농경지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영농환경 개선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